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제주도 김만덕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제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나눈 김만덕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주제** : 나눔

핵심어 여자, 여성, 김만덕, 조선, 제주도, 쌀, 금강산, 여행, 기부, 곡식

한국문화

- **목표** : 아름다운 제주도와 금강산에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제주도, 금강산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듣고 김만덕이 한 일을 말한다.
- **단어** : 돕다, 구경하다
- **표현** :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금강산을 구경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제주도 김만덕'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화산이 폭발해 생긴 섬이지요. 제주도는 삼다도라고도 불렸어요.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제주도에선 바람, 돌, 여자가 많은 걸로 유명해요. 제주도는 또 무엇이 유명할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만덕'이 유명해요. 김만덕이 왜 유명한지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제주도 김만덕'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의 남쪽 끝에는 제주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는 김만덕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김만덕은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두들 어린 김만덕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김만덕은 평소 자신을 친딸처럼 귀여워해 주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는 김만덕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만덕아, 너만 괜찮다면 오늘부터 우리 집 일을 도우면서 함께 살자.”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김만덕은 그날부터 아저씨의 집에 머물며 장사를 열심히 도왔어요.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된 김만덕은 아저씨의 일을 도우며 돈을 차곡차곡 모은 덕에 제주도에서 제법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주도에에는 비가 한참이나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쪼쪼 갈라지고 풀도 나무도 바싹바싹 말라 죽었어요.

사람들은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우리는 어찌하나!”

“아이고! 배고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야기 들려주기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당장 제주도 백성에게 필요한 곡식을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도록 곡식을 실은 배가 오지 않았어요. 곡식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임금님도 도와주시지 못하니 우리는 어찌하나?”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날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어요. 김만덕은 먹을 것이 없어 어린아이까지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김만덕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김만덕은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네, 마님! 부르셨는지요.”

“자, 이 열쇠로 곳간의 문을 열어, 곡식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라.”

김만덕이 말했어요.

“마님, 곳간에 쌓아 놓은 곡식은 다른 나라에 팔려고 모아둔 것 아닙니까?”

하인이 놀라 물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해서야 되겠느냐. 그동안 사람들이 물건을 사 주었기에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여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김만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쌀을 받아 들고 매우 기뻐했어요.

“김만덕이 우리를 살렸어. 김만덕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

“김만덕 만세! 김만덕 만세! 김만덕은 제주도의 자랑이야!”

김만덕이 한 일은 얼마 후에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여인 한 명이 굶주린 제주도 백성을 살렸다. 하늘도, 임금도 못한 일을 해내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내가 직접 상을 내릴 것이니 속히 이곳으로 데리고 오너라.”

임금님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조선시대에 제주도 사람들은 섬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임금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침내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나와 임금님이 살고 있는 한양으로 갔어요. 임금님은 김만덕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네가 큰일을 하였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여라.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겠다!”

그러자 김만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금도 쌀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금강산은 일만 이천 개의 아름다운 봉우리로 유명한 산이에요.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산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이제까지 여인이 금강산에 간 적은 없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임금님은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마침내 김만덕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 금강산을 구경했어요. 김만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지금도 제주도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김만덕은 모두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해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말해 볼까요?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와 한양에 갔어요. 또 금강산도 구경했지요. 할머니는 김만덕이 너무나 멋져 보이네요.

여러분, 김만덕이 살았던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제주도는 예전부터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았어요. 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한라산이 아주 멋지지요. 김만덕이 구경한 금강산도 무척 아름다워요.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어 금강산에 쉽게 갈 수 없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금강산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와 금강산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제주도 김만덕'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김만덕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였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또 김만덕은 힘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멋진 사람이었지요. 우리 모두 김만덕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김만덕'이 되어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아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